



벼가 익어가는 가을 풍경

양산 삼수마을에 추수를 앞둔 벼들이 잘 영근 이삭 무게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

/설병갑 사진작가

“투기 때문에 산단 밀어붙이니”

전 시의원·명퇴공무원·부동산업자·지역단체장 투기 의혹
석계 산단부지 40%, 2004~2012년도에 매매 이뤄져

“인근 주민들도 모르는 석계산단, 이제 보니 투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꼼수가 있었네요”

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상북면 석계2 일반산업단지 부지에 전 시원, 명예퇴직공무원, 부동산업자, 지역단체장, 금융단체장까지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A씨의 실거주자는 부산 해운대 인근인 것으로 추측된다. 부산에서 상북면 주소로 이전한 원인은 타지에서 5만2천280평을 소유하게 되면 세금 부담이 높기 때문에 세금을 감면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구 전 시의원, 명예퇴직 고위공무원은 2004년 재직 당시, 지역의 부동산 관계자와 함께 공동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 소유의 부지는 무려 9천여평이며, 산단의 진입로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금융기관 단체장 역시 2011년도 부인 명의로 1천86평 부지를 매입했다.

게다가 A씨의 토지대장 거주지는 상북면 D 아파트(25평수)로 등록돼있지만, 인근 주민들은 “A씨를 본적이 없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단부지의 40%가 2004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자 상북면 주민들 사이에 투기 의혹이 견습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40%의 토지 중 태광실업 박연자 회장의 조카인 A씨가 5만2천280평, 40여억원(올해 공시지가 기준)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04년도부터 2012년도 까지 산단예정부지의 21%를 매입했으며, 위치는 석계 산단의 하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경사가 완만하고 계획도로까지 포함되어 공시지가 시세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석계산단 반대의 여론은 상북면 지역에서 삼계1, 삼계2, 윗반회, 아래반회, 신반회, 양주마을, 위천마을, 감결 마을까지 반대의

20년 전통의 맛과 영양을 이어갑니다.

참숯불
기운센
장아
양산시 북정로 16(북정동)
Tel 381-2965
Mobile 011-860-8908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는 특별한 대책 없이 “주민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석계산업단지를 반대하는 학부모 및 주민 모임인 ‘천의 소리’ 관계자는 “석계 산단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구 의원과 양산시는 주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며 특히 “지역구 의원이 상북면 단체장과는 찾은 모임을 가지면서 주민들의 이야기는 들지 않는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을 대표해야 할 의원이 주민의 눈과 귀를 막고 산단을 일방 추진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주민 목소리까지 거부하면서 산단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양산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지금 지역구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과 소통하지 않으면 의원과 주민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 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혜진 기자

“민원사무 착오·지연 보상금 신청하세요”

시, 보상규정 등 적극 홍보 나서

착오·지연 보상금…사과문 함께 전달

시는 각종 민원사무 처리시 관계 공부의 착오등재나 단순한 업무과 실, 지연으로 인해 민원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민원사무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규정’을 시행중이라 밝히며 시민들의 많은 활용을 당부했다.

민원사무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규정은 각종 민원사무 처리시 관계공무원의 착오등재나 단순한 업무과실 또는 지연처리로 인하여 민원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다.

관계공부의 착오등재나 공무원의 착오기재로 인해 잘못 발급된 민원서류를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경우, 관계공무원의 복사부실로 내용이 누락됐거나 명확하지 않아 그 민원서류의 사용이 불가해 재발급을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경우, 행사일정 통지 착오로 인해 방문한 경우 등 민원사무의 착오로 인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

함으로써 손해를 입었을 경우 착오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민원사무처리기일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시켜 민원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연보상금이 지급된다.

착오 또는 지연으로 손해를 입은 민원인은 보상을 요구하면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3천원에서 3만원 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을 지급할 때는 민원사무처리부서의 장이 민원사무착오(지연) 확인서와 사과문을 함께 전달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yangsan.go.kr)를 참조하거나 전화(☎392-2426)로 문의하면 된다.

/한경은 기자

임금체불 청산 응자금 받기 쉬워진다

융자 조건이었던 ‘체불 임금의 50% 선지급’ 조항 삭제

경영상 이유로 체불한 경우, 최고 5천만원까지 융자

임무승 근로개선정책관은 “작년에 도입된 체불청산 사업주 융자제도 등이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활발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전하면서 “이 제도가 체불근로자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열심히 귀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및 ‘체당금 조력지원제도’를 이용하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 전국 47개 지방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로 신청하면 된다.

/우영덕 기자

생하자, 이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수혜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융자 요건에 해당하는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을 판단하는 사유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추가했다.

융자대상 퇴직근로자 범위도 퇴직 후 6개월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던 것을 퇴직 후 1년 이하 근로자까지로 확대했다.

한편, 10인 미만 도산기업 근로자가 체불 사업주가 융자를 받기 위해 체불임금액의 50% 이상을 선지급 해야 하는 조건이 삭제됐다.

사업주들이 이 제도의 장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체불임금액을 선지급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융자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

공증

법무법인 삼성
변호사 장운영

Tel 383-5656
(양산시 법원 입구)

양산이 배출한 불세출의 독립투사 윤현진 의사 ▶6면

내 몸에 맞는 영양제로 건강하게 섭취하자 ▶11면

2013 산청 세계전통의약엑스포

2013.9.6(화) - 10.20(일) 45일간

주최 보건복지부 | 경상남도 | 산청군 공동개최 | 후원 NH농협 | 강남은행 | HUROM | 아시아나항공 | 삼성대한현의사협회

2013 산청 세계전통의약엑스포 홈페이지(www.tramedic-expo.or.kr)

농협은행 전영업점, 팝부산 홈페이지(www.popbusan.com)

부산은행 전영업점, 프리미엄패스인터넷서널 홈페이지(www.tohpp.com)

지리산 힐링 여행

천혜의 자연과 **지리산** 정기가 있는 새로운 휴식처
동의보감촌에서 가족과 함께 **힐링 엑스포**를 즐기십시오!

2013 산청 세계전통의약엑스포 홈페이지(www.tramedic-expo.or.kr)

농협은행 전영업점, 팝부산 홈페이지(www.popbusan.com)

부산은행 전영업점, 프리미엄패스인터넷서널 홈페이지(www.tohpp.com)